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1.02

015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 광주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관한 고찰

'4대강 리크스',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문화전당, 옛 도청 별관 철거에 대한 논점과 그에 대한 의견

### 시론

'4대강리크스', 궁금하십니까?\_김진애

### 특별기획

광주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관한 고찰

### 건축과 도시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_이영규

### 건축과 세계도시탐험

'음악의 도시 비엔나'\_조용준

### 작품소개

2010 제14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동상  
'TURTLE HOUSE', '상무 힐스테이트', '광산 미래아동병원'

### 특별기고

아시아 문화전당, 옛 도청 별관 철거에 대한 논점과 그에 대한 의견\_박홍근

### 건축탐방

건축사 아카데미\_건축탐방\_박신남

### 회원탐방

나에게 건축은 종교와도 같다\_이 자







김진애  
국회의원 국토해양위

# '4대강리크스', 궁금하십니까?

4대강 사업 진실고발사이트인 '4대강리크스'(http://www.4riverleaks.com) 오픈

## 어느 토목기술자의 쪽지

지난해 어느 날 4대강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토목기술자로부터 트위터 쪽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토목기술자입니다. 일전에 저희 현장에 오셨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토목엔지니어로서 제가 맡은 일에 자괴감을 느껴본 게 처음입니다."라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런 일하려고 그렇게 어려운 공부 했던가?" 하시면서...

4대강사업 현장에서 일하며 자괴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어디 이 토목기술자 한 사람뿐이라. 이미 4대강사업 저지의 선봉에 섰던 나에게 4대강사업 관계자들로부터 수많은 제보들이 이어졌다. 그만큼 4대강사업은 온갖 탈법과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 왜 나는 4대강 사업 반대에 열정적인가?

'4대강 전사라 불릴 만큼 4대강사업 저지에 앞장선 것을 보고 왜 그렇게 열심히 반대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한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도시와 건축은 근본적으로 자연에 죄를 짓는 분야이므로 죄악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나의 철학에 대해 4대강사업은 정면으로 배치하기 때문이다. 환경파괴와 자연재앙에 대한 근본적이고 믿어지지 않는 4대강사업, 특히 가장 중요한 '물' 환경에 대한 폭력에 깊은 죄책감을 느낀다.

둘째, "부정-부패-비리-불법-편법-탈법"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권력과 자본 변수에 맞서 싸우는 나의 소신과 4대강사업은 전면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은 공약부터 계획, 그리고 추진에 이르기까지 썩은 내가 풀을 낸다. 이명박정부의 상징사업으로서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갈아먹는 사업이기도 하다.

셋째, "어떤 기술방식도 그 부작용이 철저하게 검증된 후에 범용 적용을 해야 한다"는 과학기술의 기본철학에 4대강사업은 배치되기 때문이다. 공학도로서의 기본 훈련을 받은 내가 4대강사업이 대형 준설과 16개 보(댐) 건설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다.

## 4대강 악법, 「친수구역 특별법」

4대강사업의 본질은 우리의 소중한 국토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다. 더욱이, 4대강사업의 본색은 주변 부동산개발에 있음이 지난해 12월 8일 날치기 국회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예산 날치기와 함께 10개 쟁점 법안이 같이 날치기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이다. 친수법은 한마디로 '4대강 악법'이다.

친수법에 따르면,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의 지역을 50%이상 포함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 사실상 모든 종류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친수법의 본질이 8조원의 4대강사업비를 떠안은 수공의 사업비 보전을 위해 4대강 주변의 독점개발권을 부여한 '수공특혜법'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친수법은 4대강 수질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수질오염총량제를 무력화시키는 4대강 '수질오염법'이자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부동산투기 조장법'이기도 하다. 또한 친수법은 국토기본계획 및 하천관리체계의 기본 틀을 허물고 29개 다른 법률의 인허가 사항을 의제처리 하는 '특별법 중의 특별법'이다.

## '4대강 뉴타운' 만들겠다는 MB 정부

날치기 처리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을 올해 상반기 안에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친수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명박정부가 이처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는 야당의 법안 폐지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4대강사업과 4대강 주변 난개발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자 하는 속셈 때문이다. MB 정부 임기 내에 '4대강 뉴타운'을 만들어 투기심리와 막개발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주민의 개발욕구에 편승하여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얻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음이 명확하다.

'서울시 발, 뉴타운 사기극'을 기억하는가? 개발거품과 기대를 불러일으켜 표를 몰았던 행각이 한낱 사기극이었음이 이제 모든 국민들이 깨닫고 있는데, 다시 한 번 '4대강 뉴타운'으로 전국 부동산을 들쭉지게 하려는 수법을 쓰려는 것이 한심하거나, 보전되어야 할 4대강변이 개발광풍에 파괴될 것에 몸서리가 처진다.

국민 70%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사업은 공사가 진행될수록 환경파괴 등 재앙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고 속도를 낼수록 갖가지 불법, 탈법, 부실, 비리로 점철될 것이다. 최근 4대강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기록적인 흑한과 폭설 속에서도 24시간 공사를 강행하다가 낙동강 15공구 현장에서 준설선이 침몰하여 기름이 유출되었고, 한강 2공구에서는 가물막이가 터져 굴착기 노동자가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대강 속도전'에 따른 안전불감증이 낳은 이러한 사고는 충분히 예견된 인재(人災)로서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4대강리크스'는 공사현장 관계자와 공무원, 시민 등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국민의 알 권리 보호와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위키리크스(Wikileaks)처럼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 한국판 '위키리크스', '4대강리크스' 오픈

이명박정부의 성역 사업이자 온갖 권력 동원로 은폐된 4대강사업의 진실은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파괴의 역사적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4대강사업은 국민의 법정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의원실은 지난 1월 25일 4대강 파괴사업 진실고발 사이트인 '4대강리크스'(http://www.4riverleaks.com)를 오픈했다. '4대강리크스'는 공사현장 관계자와 공무원, 시민 등으로부터 제보를 받으며, 해외서버 구축 등을 통해 제보자 신원을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다. 제보내용은 철저한 자체 검증을 거쳐 제보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거나 향후 '4대강 청문회'의 준비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4대강리크스'는 수많은 제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감춰진 비밀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위키리크스(Wikileaks)처럼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불법과 비리를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예산과 법안 날치기 통과로 거침없이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게 될 상황에서 '4대강리크스'는 현장 관계자와 시민의 제보를 토대로 4대강 파괴사업의 진실을 기록하고, 향후 4대강 파괴라는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역사적 죄를 심판하는 중요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트위터 쪽지를 보냈던 토목기술자처럼 일선 현장에서 4대강 파괴사업을 직접 추진하며 양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과 전문가, 공사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하며, 4대강사업의 재앙을 역사 앞에 기록할 것을 약속한다.



### 럭시움에너지는?

B I P V 태양광 전문 업체  
엘지 Z : I N 창호 전문 업체

### 알파시스템창호는?

커튼월, 단열창호 전문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 정부조달 등록업체

다양한 현장경험과 노하우로  
견고하게 제품들을 제공합니다.

**알파시스템창호**  
ALFA SYSTEM WINDOWS&DOOR  
www.alfawindow.co.kr  
TEL 0621 943-6801, 6802  
FAX 0621 943-6809





# 광주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관한 고찰

“광주공원 내 시민회관 철거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역 내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 방안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 집중돼”  
“도심재생에 관한 정책이 지역 건축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지난 한해는 광주시민들의 눈과 귀가 광주공원 내 시민회관의 보존 유무와 근 2년째 공방중인 옛 전남 도청 별관 보존 문제 등 광주시의 지역 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 정책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해였다. 이어 올해는 광주시의 도시개발 방향이 '외곽 신도시 개발 방식'에서 '도심재생 방식'으로 바뀌면서 광주 도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광주시의 도시개발 방향전환의 첫 시도가 된 '광주공원 내 시민회관'



부분보존으로 결정된 시민회관

그동안 철거와 보존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광주공원 내 시민회관이 작년 12월에 안전진단 등 정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보존 및 일부 철거를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는 광주시가 작년 초 시민회관 완전 철거 방침으로 철거를 시작하자, 건축사 및 교수 등 건축전문가들이 근현 대건축물 중 하나인 시민회관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이의 제기한 끝에 얻어낸 결과로,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971년에 건립된 시민회관은 광주 최초의 대규모 문화공간으로서의 근대 역사성을 갖고 있으며, 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가는 건축양식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광주시는 부분 보존으로 결정함에 따라 작년 12월 초부터 올해 1월까지 약 한달 간 공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어르신들과 청소년이 어울릴 수 있는 새로운 문화, 휴식, 화합의 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1월 24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 진행



공모전 최우수작, 광주공원, 도시의 기억과 일상을 담다

아이디어 공모는 전문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전문 부문 최우수상에 차인수씨의 '광주공원, 도시의 기억과 일상을 담다'가 당선되었고, 우수상은 장우진씨의 '물빛이 흐르는 녹색 내일', 장려상은 신예진씨의 '자연 속 고급 문화소통 장소가 선정되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우수 수상작은 안전등급 E등급을 받은 공연장 천장 부분을 철거한 뒤 개방형 광장과 계단, 물길, 소규모 무대 등을 설치하고 예식장 등 기존 건물과 연계하도록 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와 같이 광주공원 내 시민회관의 활용방안을 공개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에 따라 광주시가 목표로하는 도시이미지형성의 접근방법에 긍정적인 효과를 대내외적으로 얻게 하였으며 이는 기존 '외곽 신도시 개발 방식'이라는 광주시의 도시개발 정책을 '도심 재생 방식'으로 전환한 후의 첫 시도라 할 수 있다.

## • 역사 속으로 사라진 광주 근대건축물

현재 금남로에 구 한국은행 건물을 헐고 조성한 금남공원은 공원 자체적으로 도심 속 공원이라는 큰 의미가 있지만 약 50여 년 광주의 시간과 함께 한 건축물을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 없이 완전 철거를 통해서만 공원조성이 가능했기에 대해 건축인들은 모두 아쉬워한다. 이와 함께 남광주 역사 또한 상인들의 주차공간 확보 요구와 테마 공간 조성방침에 의해 철거됨으로써 후대에 남길 또 하나의 건축문화유산이 손실되고 말았다고 볼 수 있다.



(구)한국은행철거, 그자리에 금남로공원

## 또 다른 근대건축물인 광주교도소 활용은 어떻게...

광주 북구 삼각동으로 이전 예정인 광주교도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운태 시장은 교도소 부지에 민주, 인권, 평화 공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광주발전연구원에 연구를 맡겼으며, 올해 5월께 공청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북구 삼각동으로 이전 예정인 광주교도소

현재 교도소는 5.18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자칫 사적지 보존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 될 수도 있다. 어떻게 결정되든 광주교도소는 약 40여년의 시간을 지낸 근대건축물이며 또한 5.18 사적지로서 역사적인 장소이다. 이러한 건축물을 대인의 논의 없이 무조건 철거하는 방안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회관처럼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해 일반시민들을 포함한 건축사 및 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천득염 교수(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회장은 광주교도소를 "민주인권의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시의 입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며, 보존·활용하여 교도소를 호텔로 재개발한 사례인 '암스테르담의 로이드호텔'을 예로 들며 호텔이나 문화공간, 수형생활체험을 겸한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제안하였다.



간혹을 호텔로 개축한 암스테르담의 로이드 호텔

## 근대건축물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근대 건축물에 대한 기록 보존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근대건축물은 수피아여고내 수피아홀과 원각사, 전남여고 구부관 등 주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지어진 것이며 교육시설 및 종교시설, 업무시설 등 약 100동이다.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실측과 촬영 등을 통해 보고서 및 책자, CD로 만들 방침이며 조만간 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올해로 100년이 된 수피아여고내 수피아홀

광주시는 "설계도면이 없는 건축물에 대한 실측 자료를 확보하여 소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고 근대 건축물에 대한 완벽한 보존을 위해 이번 사업을 계획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득염 교수는 "광주시 도시공간에 산재해 있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실태파악, 정밀실측을 통한 기록화와 보존 등은 절실한 과업으로 시기적절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향후 어떤 상황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건물들에 대한 기록화는 공적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다.

## 외국의 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 사례와 방안 제시

동아인재대학 건축과 남승진 교수는 일본 요코하마 항구 주변에 버려진 창고를 활용하여 예술창작 활동에 활용한 'Bank Art 1929' 프로젝트사업을 예로 들며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민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도시문화를 창출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창출된 사례이다"며 무엇보다 우리지역



은행건축물의 피사드를 복원한 신구가 조화된 건축물

의 전문가와 일반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및 행정기관의 실행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활용 방안은...

우리의 정신적 뿌리는 과거 없이 현재를 이야기할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듯이 과거와 현재의 연속선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광주의 근대건축물은 지역의 역사와 감성, 지역의 고유가치를 간직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철거가 아닌 현대적 언어로 재창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접근과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근대건축물이 갖는 역사성과 현대적인 활용성과 결합하여 새로운 사회적 공유를 시도한다는 것은 도심재생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

마지막회 : 새로운 도시만들기

이영규 교수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1. 도시(City)\_ (2010년 3월호)
2. 광주의 공간발달사\_ (2010년 4월호)
3. 광주의 시가지계획\_ (2010년 5월호)
4. 싱가포르\_ (2010년 6월호)
5. 브라질의 '푸리피바'\_ (2010년 7월호)
6. 캐나다의 '벨쿠버'\_ (2010년 8월호)
7. 미국의 '시애틀'\_ (2010년 9월호)
8. 일본의 '요코하마'\_ (2010년 10월호)
9. 일본의 '구마모토'\_ (2010년 11월호)
10. 일본의 '세타가야구'\_ (2010년 12월호)
11. 영국의 '세필드'\_ (2011년 1월호)

## 새로운 도시만들기의 인식과 방향

광주시를 포함해 한국의 도시는 60년대부터 시작된 압축성장의 결과 도시별 특색이 없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갖는데 실패했다. 전국 어디를 가나 비슷한 모습의 도시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전통과 역사를 반영한 도시를 만드는데 인식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도시계획 분야는 과거 일제 식민지경영의 유산인 중앙주도, 비밀주의, 시설중심, 전문가중심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도시계획 본연의 보편적 접근이 어려운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건축분야도 건축물의 디자인 자체보다도 부동산개발내지 인허가위주의 사회적 인식에서 건축 본연의 아름다움과 기능을 찾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건축분야와 도시계획분야가 서로 독자적이며 분리된 채 평행선을 그으며 각자의 길만을 가게 됨으로써 서로에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건축 및 도시계획분야가 가야할 방향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과 같이 참여(participation), 과정(process), 디자인(design), 문화(culture)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 속에 새로운 도시만들기의 철학을 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새로운 도시만들기의 기본 원칙(principle)

• **참여(participation):** 한국의 건축 및 도시계획분야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국가인 일본이나 대만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한국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한 편이다. 법적으로는 참여의 길이 열려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참여를 보장한 것에 불과할 뿐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기껏해야 들러리를 서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한다. 무슨 사업이나 계획을 수립하거나 결정하는데 있어 좀 더 많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업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과감한 자세가 요구된다.



주민참여의 성공은 무엇보다 비공식적인 모임 등을 통해 편하고 자유롭게 주민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사진은 일본의 주민들이 워크숍에서 마을만들기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 Step5 계획안작성 공공부문 : 내 집, 내 집 앞 가꾸기 워크숍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만들기로 법적 지구단위계획제도에 주민참여의 방법을 시범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마을만들기운동이 일어났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측면에서 주민참여는 아직 일천하다고 볼 수 있다.

• **과정(process):** 참여는 과정과도 연관되어 있다. 과정이란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과정이란 사업이나 계획을 수립하거나 결정하는데 있어 미리 다 되어 있는 내용을 형식적 절차를 통해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로운 논의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도시마다 또는 사업이나 계획의 성격에 따라 자유로운 방향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environs)이 조성되어야 한다.

• **디자인(design):** 도시를 특색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나름대로 독자적인 디자인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특히 색채를 포함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도시마다의 디자인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과정 중에 검토되고 논의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자위적인 해석에 따라 또는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점내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정부는 지금이라도 건축과 도시계획의 미래를 좌우할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정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운영하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보다 지역적 특색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디자인가이드라인은 위원회와 관련된 잡음을 없앨 수 있으며 또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허가 행정을 주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 **문화(culture):** 건축과 도시분야에서의 활동 등이 이제는 새로운 세대로 그리고 보다 넓고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사실 21세기는 도시시대라고 말하며 도시와 건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행사가 개최되기도 하지만, 정작 도시와 건축분야의 문화환경을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의 모형도. 주민참여방식에 의한 계획수립과정을 거쳐서 계획안이 수립되었다.

바꿀 근본 토대는 아직 구축되지 못하고 과거의 관습만이 되풀이 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앞서 세계 각 도시의 사례에서 살펴 보았듯이 도시만의 각자 색깔을 갖게 만들어 가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때만이 새로운 도시 및 건축 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 현재 분절되고 독자적인 활동문화가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면서 삶이 배어오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운동으로 승화 될 때만이 새로운 도시만들기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건축물만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벤트가 있을까.(최근 싱가포르에 건립된 마리나리조트)

## 새로운 도시만들기의 기본철학과 이즘('evolutional societal change'와 'planningism')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회 전체에 대한 변화를 새로 만든다는 것(new societal change)은 극한 상황이나 다음에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즉 도시를 만들어 가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의 인식과 명확한 비판이 요구된다. 특히 건축과 도시분야는 제도적이나 현실 인식에서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서로 얽히고 꼬여있어 문제점 인식 자체가 힘들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며 해결방안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다는 점도 있다. 각자의 일에서 안주하며 생존해가는 상황에서 사회변화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현실에 안주하거나 아니면 무감각하여 나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또 그렇다고 급격하게 혁신적으로 사회(innovation change)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정치적 결단(political change)으로 상황을 일시에 돌리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하겠다. 건축과 도시분야는 일반 기술과는 달리 사람들의 인식과 전문기적 식견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과정(evolutional societal change)을 거쳐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건축 및 도시분야에서 단절되고 독자적인 인식과 활동영역을 서로 협력하며 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희생과 비판이 수반되더라도 말이다. 그런 점에서 작품아닌 작품이 난무하고 법적 테두리 한계 속에서 퍼즐풀이식 개발계획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와 과정을 기본 토대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통해 명확한 개발방향을 제시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는 새로운 철학(planningism)이 필요하다. 이러한 철학 속에 광주시가 만들어 갈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만들기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imgyoung@gwangju.ac.kr

지금까지 총 12회에 걸쳐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를 연재해 주신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이영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 음악의 도시 '비엔나'

조용준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1.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2010년 10월호)
2. 광장의 도시, 성당의 도시 '로마' (2010년 11월호)
3. 건축박물관 도시, 체코 '프라하' (2010년 12월호)
4. 천년의 도시, 헝가리 '부다페스트' (2011년 1월호)

이 글은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조용준 교수가 월간 '조선대학교 소식'에 연재하고 있는 내용을 직접 재구성하여 제공하였으며 매 회 세계 각국 역사도시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알프스 동쪽기슭 도나우강변에 있는 인구 170만명의 비엔나는 오스트리아의 수도로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등의 발자취를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다양한 공연과 페스티벌이 열리는 음악도시이다. 또 650여 년 동안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을 지배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수도로서 화려한 궁전과 성당을 비롯하여 수많은 역사적 자산을 갖고 있는 역사도시이다. 아울러 화가와 건축가들의 도시이기도 했던 비엔나는 삶의 질 조사에서도 항상 스위스 취리히 등과 1, 2위를 다투는 살고 싶은 인간중심의 도시이다. 이러한 매력 덩어리 비엔나는 크게 중심지구인 링지구와 헨브룬 궁전지구, 숲지구, 중앙요지지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역사적 자산은 링 지구에 집중 되어있다.



비엔나지구

### 비엔나의 역사적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링지구

특히 구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던 성벽자리에 형성된 링모양의 환상형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안쪽에는 슈테판 성당, 케른트너 거리, 국립 오페라극장, 호프부르크 궁전, 시민정원, 왕립극장 등이, 바깥쪽에는 시청사, 국회의사당, 자연사 박물관, 미술사 박물관, 시립공원이 입지하고 있어서 도시임기도 아주 쉬운 도시이다. 특히 링지구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교 최초 순교자인 성인 슈테판의 이름을 딴 성슈테판 사원은 높이 137미터의 남탑과 67미터의 북탑, 25만개의 청색과 금색벽돌로 만든 화려한 모자이크 지붕, 39미터 높이의 내부천정과 스테인 글라스로 장식된 창이 아주 인상적인 오스트리아의 최대 고딕양식 건물이다.

모차르트의 결혼식과 장례식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지하에는 15세기말에 흑사병으로 죽은 약2,000구의 유골과 대주교의 무덤, 합스부르크 왕가의 내장을 보관해 놓은 항아리가 있는 성당이기도 하다. 성당 뒤쪽에는 최대 쇼핑거리인 그라벤이 있고, 성당 앞쪽에서부터 국립오페라 극장 앞까지에는 비엔나의 중심 축 역할을 하고 있는 최대 상점가인 켈른트너 거리가 있는데, 국립오페라 극장은 파리 오페라 하우스, 밀라노

오페라 하우스와 함께 유럽의 3대 오페라 극장 중 하나로 불릴 정도로 유명하다. 1869년 모차르트의 돈조바니 공연으로 개관한 이 극장은 매년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300여회 공연을 하는데, 신축당시에는 건물에 대한 비난으로 인테리어를 디자인한 건축가가 자살하기도 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정부청사나 국회의사당보다 먼저 복구되었을 정도로 비엔나



국립오페라 극장

의 자부심이다.

이 극장 부근이자 링 도로변에는 1220년경에 건축되어서 합스부르크 왕가가 문을 닫은 1918년까지 황제들의 거처였고, 지금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제컨벤션 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호프부르크 궁전이 있다.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궁전은 앞의 황제가 사용하던 방은 다음 황제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불문율에 따라서 방이 무려 2,600여개나 되는데, 구왕궁에는 궁전 예배당, 궁전 보물창고, 스페인 숭배학교가, 신왕궁에는 무기과 악기 박물관 등이 있는데, 궁전 앞 헬덴 광장은 항상 이를 관람하려는 관광객으로 붐빈다.

### 지속적 연출로 매력있는 도시문화 생성

궁전 바로 옆에는 괴테, 모차르트 등의 기념비가 있는 시민정원과 국립 오페라단, 필하모니 관현악단과 더불어 빈의 3대 문화기수로 불리우는 궁정극장이 있고, 극장의 건너편인 환상형 도로 바깥쪽에는 중앙 첨탑까지의 높이가 98미터이고, 기사상을 합하면 108미터가 되는 1883년에 건축된 네오 고딕양식의 비엔나 시청사가 마주하고 있다. 시민들의 대표적 문화공간인 시청사 앞의 광장은 여름에는 필름 페스티벌이,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나 군밤, 솜사탕 등 먹거리나 크리스마스 장식품 판매는 물론, 세계 여러 합창단이 참가하는 크리스마스 캐럴 콘서트 등 일년 내내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열리는 장소로도 유명한데, 여기에서 느낀 것은 매력있는 도시문화는 지속적 연출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시청사에서 환상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조금 가면 그리스 신전을 본 딴 국회의사당과 미술사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시민공원이 차례로 인접해 있는데, 궁전 앞의 헬덴 광장과 마주하고 있기도 한 1891년에 개관한 오스트리아 최대 미술사 박물관에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수세기에 걸쳐 수집한 수많은 미술품과 역사적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이와 마주 하고 있는 세계 10대 박물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는 자연에 관한 수집품 2,000만점이 전시되어 있



시청사 필름페스티벌

는데, 특히 25,000년 전 조각상 빌렌도르프 비너스를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두 개의 박물관 사이에는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마리아안테네트의 어머니인 마리아 테

레지아 여왕의 동상과 이를 둘러싸고 그에게 헌신한 귀족들이 타고 있는 4개 기마상이 설치된 마리아 테레지아 광장이 있는데, 이 여왕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 대항하여 제국을 지킨 여걸이다. 주변에 수많은 노천카페와 호텔 등과 요한 스트라우스 2세 동상, 슈베르트 동상 등 오스트리아를 빛낸 음악가들의 동상 있는 시민공원은 또 다른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다.

### 이 밖의 링 지구의 훌륭한 문화유산

링 지구에는 이외도 베토벤이 거주했던 파스칼라티 하우스, 모차르트가 피가로의 결혼을 작곡한 피가로 하우스, 슈베르트 생가, 하이든이 거주 했던 하이든 기념관, 첫 번째 아내와 거주하며 블루 다뉴브 왈츠를 작곡한 요한 스트라우스 기념관 등도 가볼만 하다. 링 지구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는 베르사유 궁전과 더불어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궁전인 바로크 양식의 헨브룬 궁전이 있는데, 우아하고 호화스러운 로코코 양식으로 꾸며져 있는 1,441개 방에는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이 수집한 각종 가구, 자기제품이 전시되어 있다.



헨브룬 궁전 - 글로리에테

이 부근에는 상공과 하공으로 구성된 바로크 양식의 아름다운 벨베데레 궁전도 있는데, 중세 바로크시대 미술이 보관되어 있는 하공은 1914년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한 프란츠 페르디난트 황태자가 기거했던 곳이자, 1965년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4개국 외무부장관이 중앙홀에서 오스트리아의 중립체제를 조건으로 자유와 독립을 부여하는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을 체결했던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상공에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화가 중의 한사람인 클림트의 작품인 '키스', '유디트' 등 오스트리아의 현대미술이 전시되어 있는데, 클림트는 1894년에 오스트리아 문교부의 의뢰를 받은 빈 대학 강당의 천정화에 천하, 의학, 법학을 노골적이고 강렬한 에로티시즘 표현으로 비난을 받자 작업을 중단했지만, 그 후 로망이 그의 작품을 보고 극찬하여 다시활동을 했던 사람으로도 유명하다.

### 세계적 음악가들이 즐기고 있는 중앙모지

이곳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가면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즐기고 있어 음악가 모지라고도 불리는 240헥타르의 중앙모지도 있는데, 정문을 지나서 200미터쯤 올라가면 왼쪽에 베토벤, 슈베르트, 요한 스트라우스, 브람스 등의 묘가 있고, 중앙에 모차르트 기념비가 있어서 또 다른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링 지구의 동쪽에는 건축가 프리덴 슈라이히 훈데르트바서가 1985년에 삭막하고 특징이나 국적 없는 현대주택을 지양하고, 현대인들이 꿈꾸는 이상을 실현을 목적으로 설계한 훈데르트바서 하우스가 있다. 이밖에 비엔나에는 18세기 유럽을 휩쓴 페스트가 빈에서 물러난 것을 기념하여 바티칸의 성베드로 성당을 본 따 만든 높이 72미터의 돔형지붕을 갖고 있는 바로크식의 카를 성당, 베토벤이 청각을 잃을 무렵 유서를 작성했다는 빈숲에 있는 하일레겐 슈타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요새로도 사용되었던 지그문트 지하동굴 등도 가볼만 하다. 이처럼 빈은 합스부르크 왕가를 중심으로한 역사적 자산과 세계적 음악가들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문화도시이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1989년부터 건축상을 시상해왔다. 본 지면에서는 2010년 '제14회 광주광역시 건축상'을 수상한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건축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건축인들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금 상 광주영성박물관
- 은 상 빛고을 시민문화관, 김치종합센터
- 동 상 TURTLE HOUSE, 상무 힐스테이트, 광산 미래아동병원

2010년 제14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동상** \_ 최경양 건축사 한샘 건축사사무소



## TURTLE HOUSE

- 작 품 명 : TURTLE HOUSE
-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757번지
- 용 도 : 단독주택
- 연 면 적 : 100.64㎡
- 건축면적 : 256.88㎡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설 계 : 한샘 건축사사무소



복잡한 도시에서의 생활 가운데 거북이와 같이 인내와 온순 그리고 장수하는 삶을 닮고자 거북이를 컨셉으로 하였고, 조각배 공원과 주변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한마리 거북이가 기어가는 듯한 형태로 계획하였다. 평면과 입면의 변화를 통하여 기존 주택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하여 주변 주거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주택으로서 4개층은 부담스럽지만 지형과 층고를 적절히 활용하여 평면배치와 높이를 조절하여 생활하는데는 2층처럼 느껴지도록 하였다. 태양광 및 2중구조 창호 system으로 채광통풍을 고려한 설계와 시공으로 친환경 주택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2010년 제14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동상** \_ 이범국 건축사 (주)다인 건축사사무소



## 상무 힐스테이트

- 작 품 명 : 상무 힐스테이트
-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생촌동 364번지
- 용 도 : 공동주택
- 연 면 적 : 82,347.33㎡
- 건축면적 : 5,545.6853㎡
- 설 계 : (주)다인 건축사사무소



상무 힐스테이트는 눈부신 전망과 차별화된 라이프스타일로 광주 주거문화의 자부심을 지키고자 자연과 사람의 아름다움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물과 길과 꽃이 하나된 정원을 거닐며 밝은 햇살과 쾌적한 바람소리를 취할 수 있으면서 항상 그 끝은 사람을 위한 자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기본배치는 모든 세대가 넓은 시야와 조망 및 햇살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였고 또 중앙광장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며 개방적이고 그늘이 없는 자연친화적 외부공간을 형성함과 동시에 휘트니스센터와 썬크가든 필로티를 연계하여 체력단련공간과 휴식공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체정원 공간 등을 형성하였다.

2010년 제14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동상** \_ 은철영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휴먼앤스페이스



## 광산 미래아동병원

- 작 품 명 : 광산 미래아동병원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456-112외 필지
- 용 도 : 의료시설
- 연 면 적 : 5,767.97㎡
- 건축면적 : 851.54㎡
- 설 계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앤스페이스



무안간 제2순환도로에서 운남대교를 지나 운남동 구도심과 수완동 신도심을 연계하는 위치에 자리잡은 광산 미래아동병원은 남구와 북구에 이어 세 번째 병원으로서 광주에 명실상부한 명품 아동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한 계기가 되었다. 기존의 두 아동병원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도시적인 세련된 이미지를 부각한 수직선의 금속재질과 아동병원의 이미지를 연상케하는 커튼월 속 원석의 백판을 디자인하여 의료 및 임대 사업의 목적이 있는 아동병원의 두가지 조건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전면에 막힌 면과 달리 내부공간은 적절한 비움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에게 또다른 이야기거리를 제공하였다.





# 아시아 문화전당, 옛 도청 별관철거에 대한 논점과 그에 대한 의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추진배경은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으로, 광주를 문화의 중심지가 되게 하여 아시아 문화도시, 광주'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의 성격과 방향을 놓고 문광부와 광주시, 시민사회내의 갈등과 이견도 많다. 그 중 핵심시설인 아시아문화전당은 2005년에 안을 확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08년 6월에 기공식을 가졌으나 유적지 보존에 대한 이견으로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 그러나 연면적 약80,000㎡에 이르는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 장소가 옛 전남도청 일원으로 결정되는 순간, 최후의 5.18항쟁 지역이었던 그 일대의 원형보존은 어려운 운명이 되어 버렸다.

(예술광주 47호에 게재한 내용을 일부 개편집함)



그림1. 문화전당 국제현상설계 당시 안 '빛의 숲'



그림2. 옛 전남 도청 주변 배치도 - 붉은 부분은 보존된 옛 도청 본관과 민원실 옛 경찰청 본관과 민원실이다. 노랑 부분은 철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옛 도청 별관위차다. 이곳은 전당설계에서 주접근로이며, 비상차량의 출입, 민주광장과 문화광장의 연결점 등 아주 중요한 곳이다. 주택으로 비유하면 대문이고 현관과 같은 곳이다.



그림3. 옛 전남도청 주변 조감도, 옛 도청별관이 철거된 후 완성시 그 주변 모습, 별관 위치가 전당의 주 출입구임을 알 수 있다.

문화전당 설계안은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결정됐다. 5.18유적지인 옛 도청 본관이 돌보이며, 무등산 조망이 어디에서나 가능한 신개념의 건축양식이라 한다. 모든 시설들은 지면 아래에 넓은 계곡처럼 형성된 아시아문화광장을 사이에 두고 배치하고, 지상은 승으로 구상된 우규승 건축가의 작품, '빛의 숲'이다.(그림1, 2, 3)

이와 같은 설계개념을 놓고 2년여간 지역내에서 랜드마크 논란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기공식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공식 직후부터 옛 전남도청 별관철거 논란이 제기되 지금까지도 의견갈등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옛 도청별관에 대한 논란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서로가 진일보한 의견접근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화전당이 2014년이라도 개관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간략하나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논점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문화전당 설계 지침에서 도청별관은 철거대상 이었다. 문화전당 최종 설계안은 옛 전남도청 별관이 위치한 곳을 전당의 비상차량과 이용자의 주 접근로로 계획되었고, 민주광장과 문화광장의 연결점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되어 있다. 이런 점들은 현 시점에서 별관 원형보존의 어려움이다.

이에 여러 난제들 속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본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장소는 옛 전남도청 일원의 모든 것들이다. 별관은 그 중의 하나다. 전체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 생각한다. 5.18의 기억과 역사적 가치가 '별관'이 없어진다고 사라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 외 것만으로도 물리적인 것은 부족하지 않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5.18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확립하며, 공유하고 실천하는 것과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감동스런 콘텐트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추진단의 별관 '일부골격'과 '일부원형 보존'이라는 최종안은 공여지책에 불가하다란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최초 전당의 기본 개념인 '장소성'과 '역사성'은 유지되지만, '개방'과 '소통'을 통해 완성하고자 했던 민주광장과 문화광장의 연계성, 전당주변의 도시경관과 전망 확보 등은 많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보존이나 철거는 가치판단의 문제다. 형상보다 그곳에 있는 의미와 스토리가 감동을 주는 것이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더욱 더 기억 한다.

우린 여기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어정쩡한 결론은 무미건조한 결과를 가져 오고, 이런 것으로는 도시경쟁력이 될 수 없다.



그림4. 게이트안 (2009.6.9) 별관 중 빨간가동 부분은 시도민대책위가 옛 전남도청 별관과 문화의전당이 공존·상생의 대안이 될것으로 제시한 게이트안. 일명 '오월의 문'. (광주드림 자료사진)



그림5. '30m 보존안' (2010.7.29) - 전체 54m에 이르는 건물 가운데 왼쪽 24m를 철거하고, 30m를 보존키로 한 '30m 보존안' (광주드림 자료사진)



그림6. '4층 통로안' (2010.9.20) - 전체 54미터 중 우측 30미터는 보존하고, 좌측 24미터는 1-3층만 철거 후 4층 통로만을 남겨둔 시도민대책위와 광주시가 합의 한 '4층 통로안'. (광남일보 자료사진)

지금까지 나의 일관된 주장은 '별관 철거 후 최초 '원안' 설계대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옛 도청 별관을 그대로 원형보존하고 '전면적인 설계변경을 하라'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다. 전면적 설계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원안대로 진행함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은 '민주·인권·평화정신'인 5.18정신은 기억속에서 날로 희미해지고 있는데, 5.18과 관련된 각종 단체인 이름으로, 그들만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는 현실은 앞으로 광주가, 광주에 사는 우리들이 극복해야 할 숙제로 보인다.

## 옛 도청별관 논란 일지

- 2005. 6. 28. 아시아문화전당 국제현상설계공모  
'설계지침'에 따르면 도청별관 철거하고, 옛 전남도청 청사 중 본관과 민원실, 5·18민주광장, 분수대는 보존, 경찰청과 경찰청 민원실, 상무관은 설계자 재량이 맡기로 함
- 2005. 12. 2. 문화전당 당선작 선정 발표(그림1)
- 2008. 6. 10. 기공식
- 2008. 6. 24. 5.18단체의 옛 도청별관 철거 반대 천막농성 시작
- 2008. 12. 9. 문광부 공사 중지 발표
- 2009. 2. 25. 공사 다시 시작
- 2009. 6. 3. '10인 대책위' 구성  
광주시장, 지역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별관 대책 논의 위원회
- 2009. 6. 9. 도청보존 시도민대책위가 제안한 '게이트안'(그림4)
- 2009. 9. 22. 문광부와 '10인 대책위'가 별관 '부분 보존' 방안을 모색키로 합의
- 2010. 1. 7. 별관에 대한 구조물 안전진단, 최하위 등급인 E등급 판정
- 2010. 7. 29. 문광부가 제시한 '30m 보존안'(그림5)  
전체 54m에 이르는 건물 가운데 왼쪽 24m를 철거하고, 30m를 보존한 안
- 2010. 9. 20. 시도민대책위가 제안한 '4층 통로안'(그림6)
- 2010. 12. 13. 시도민대책위는 '4층 통로안' 철회
- 2010. 12. 23. 문광부 추진단이 제시한 '정부 최종안'(그림7)  
시도민대책위는 '최종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원형보존'을 주장하며, 10인 대책위는 정부 '최종안'을 수용한 상태임.



그림7. 문광부 '최종안' (2010.12.23) - 옛 별관 건물 54m가운데 30m는 원형대로 보존하되 나머지 24m부분은 골격만 남겨, 건물의 형상만 보존한다는 문광부 '최종안'. 이 방안은 별관 뒤에 들어설 어린이 지식문화관을 약35m정도 축소하게 되지만, 문화전당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유지하며 기본개념인 '개방'과 '소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추진단의 설명. (광주일보 자료사진)



# 건축사 아카데미 : 건축탐방

광주건축사회에서는 2010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제1기 건축사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광주 시민, 대학생, 건축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순효상 건축사의 '땅과 건축'의 공개강좌에 이어 친환경 건축을 인증 기준과 건축 설계 방법론, 도시 디자인과 도시재생, BIM, 현상업무의 진행 관련 업무, 마케팅 및 계약 관련 업무 등을 교육하여 건축사사무소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1월 13일(목)에 제1기 광주건축사 아카데미 수료식 일정 후 역사성이 있는 근대 건축물 중 이장우 가옥, 오웬 기념각, 김용학 가옥을 탐방하였고, 꽃살 창호 기능 전수자인 무형문화재 임정철 씨의 한국 전통건축물 중 창호를 제작하는 곳을 방문하였다.

## 광주시 도심에 무등산을 바라보며 배치되고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된 전통 목조 주거용인 이장우 가옥

1899년에 축조되었으며 당시 소유는 정병호였으며, 1965년에 이장우가 사들였다. 앙림동 사직공원 남쪽에 무등산을 바라보고 도심에 배치된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된 전통 목조 주거용 건물이다. 3칸 솥대문인 문간채를 지나 우측으로 원형의 작은 연못과 바깥 마당이 있는 사랑채를 두었으며, 행랑채에 딸린 문간을 지나면 안마당과 북측의 바람을 막기 위한 곡자를 둔 아담한 안채가 배치되어 있다. 사랑채는 각기둥의 5칸, 홀처마, 팔작지붕이며, 가운데 마루부분은 특이한 문살을 둔 미서기 유리문을 두어 근대 문화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채의 평면 형태는 ㄱ자집 형태로 정면 6칸에 좌우 퇴가 있고, 원기둥, 겹처마, 2고주 5량의 팔작지붕으로 비교적 크기 작은 부재를 사용해 기단 부분, 벽 부분, 지붕 부분이 균형이 잘 맞아 편안함과 아늑함이 돋보인다. 세발대의 다들 돌기단 위에 원형 주초석을 놓고 원형기둥과 사각기둥을 세웠다. 보아지와 우미량(牛尾梁) 뒷보에 도리를 걸구하였다.



이장우 가옥

대청은 2분합 겹문으로 안은 미닫이, 밖은 여닫이문을 설치하였다. 대청의 문은 4분합 들어 열개문이다. 여닫이문을 고정시키기 위해 중인방(中引枋)에 문잡이로 거북장식물을 두었으며, 들어 열개문을 고정하기 위해서 참새모양의 장식물을 장여에 두고 있다. 전반적으로 뼈대가 굵고 건실하며,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전통가옥이다. 이장우 가옥은 탐방객이 거주하며 체험할 수 있는데, 한복을 입고 민요를 부르거나 한국화를 그리기도 하며 우리의 전래 동화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당에서 민속놀이도 할 수 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다.

## 벽돌 조적조의 서양식 기념관인 오웬기념

광주시 남구 앙림동에 선교사로 활동하다 순교한 오웬(Clement C.Owen)과 그의 할아버지 윌리엄(William)을 기념하기 위해 1914년에 건축한 서양식 건축물이다. 오웬(Clement C. Owen, 1867-1909, 한국명 오웬 또는 오기원)은 1898년 11월 내한, 배유지(E.Bell) 선교사와 함께 목포선교회를 시작으로 1904년 12월에는 배유지 선교사와 함께 광주 선교부를 시작했다. 그가 1909년 4월에 폐렴으로 사망하자 미국 친자들이 성금을 모아 그와 할아버지의 선교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념각을 지었다.

정사각형 평면에 회색연비와 벽돌 조적조의 서양식 기념관으로 강당과 집회장으로 사용이 편리하도록 모서리에 강단을 설치하고, 그 반대편 2층에 강당을 두



오웬 기념각 전경



주출입구 전경

실내 천정 트러스 부분

어 시야를 가리지 않고 강단에 집중되도록 마루 바닥이 경사지게 깔아져 있다. 지붕을 구조는 목재 트러스 구조로 노출되어 있고 장 스팔 큰 보를 만들기 위해 판재를 여러 겹 붙드로 접합하여 만들어져 있다.

외관은 지면 위 석재 기단석을 놓고 1층 부분은 두 겹게 쌓아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의정적 편안함을 두었다. 강단 좌우측 벽 중앙의 주 출입구는 안쪽으로 후퇴하여 출입문을 두고 출입구 좌우에 석재 주초석 그 위에 2개씩의 둥근 철재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아취를 쌓아 이 건물의 가장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특히 이 기념각은 전남지방 사경회 성경학교 건물로 사용되어 왔으며, 지난 1987년까지 서원전문대학 및 간호전문대학 강당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현재는 기독교간호대학 채플 및 광주양림교회(통합측) 수일 학교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서측 출입구 앞은 앙림 교회의 담장이 막히고 북측 출입구 앞은 간호대학 5층 건물이 가깝게 가로 막고 있어 탐방이 자유롭지 못함이 아쉽다.

## 전통 목조 건축물과 조경과 자연이 삼위일체가 되어 세월의 깊이를 더한 김용학 가옥

북구 매곡동에 1917년에 건축된 건물이다. 동서를 중심축으로 하여 고설삼문, 사랑채, 안채를 둔 주거와 그리고 이웃에 병행하여 역시 동서축으로 원지, 고설삼문(高設三門), 하은정(荷隱亭), 연파정(蓮坡亭) 등 선로들이 유람 상춘을 즐겼던 건물들로 배치되어 있다. 동서를 중심축으로 입구 좌측에 지름 5m의 둥근섬에 오래된 백일홍 2그루가 있는 연못이 있고 5칸에 중앙 솥대문의 문간, 외부 마당을 지나 청풍헌이란 현판이 걸린 사랑채가 있으며 사랑채 좌측 중간 높이에



김용학 가옥과 연못 정원 전경



김용학 가옥 주출입 전경

솥살문을 지나면 하은정이 있고 하은정 뒤로 좁은 석재 계단을 올라가면 남측을 향한 연파정이 있다. 남도 농가의 살림집의 전형적인 배치 형태로 사랑채 뒤편 공터에 초가집의 안채가 있었으나 노후하여 철거되었고 지금은 우측 남측을 향해 2층의 현대주택이 있어 건축주가 살면서 관리하고 있다. 사랑채는 자연석 기단, 원기둥, 홀처마 팔작집으로 앞마루를 두고 좌측 칸에는 유리 미서기 문을 달아 주거에 편리함을 더했고 원기둥, 상부의 창방을 기둥위에만 있는 뜬창방을 두는 의정적 특성이 있다.

하은정은 좋은 나무(귀목: 느티나무과)를 구해 원기둥을 세운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마을의 강학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다. 균형 있고 아름다운 연파정은 조망이 좋은 가장 높은 곳에 남향배치된 3칸 중앙에 마루방을 둔 정자로서 문짝을 들어 올리면 높낮이가 없는 평탄한 마루를 만들었다. 정자 후면에는 작은 연못을 두고 주변의 담장은 기와를 중간에 걸쳐 투담을 쌓았다. 현재 정자 주변은 훼손 방지를 위해 판자문으로 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나이 드신 건축주가 서서히 침범해 오는 아파트 숲을 언제까지 막아낼지 우려되므로 우리 건축인이 힘을 실어 주어 역사성 있는 전통주거 건축이 잘 보존 되었으면 한다.

## 장인의 손끝이 느껴지는 정교한 꽃 살 무늬 창호

노동부 지정 제2007-02호 꽃 살 창호 기능 전수자인 임정철 씨의 전통 창호 제작소를 방문하였더니 '나무의 특징도 사람의 경우와 흡사하고, 함께 어울려 숲을 형성한 나무가 바르게 잘 자라 전통건축물에서 꼭 필요한 목재로 쓰인다'고 하였다.



꽃 살 무늬 창호 1

꽃 살 무늬 창호 2

전통 문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 매화나 연꽃 모양의 문양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솥을 꽃 살 창호 문양과 영광 불갑사 대웅전 여간의 연꽃과 국화 무늬 창호 문양, 변산 내소사 대웅보전의 꽃 살 무늬 창호의 문양을 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도 무형문화재인 임정철 씨는 꽃 살 무늬 창호를 대부분 3분법으로 제작하는데, 4분법으로 제작하여 특히 받았다고 하였다.



# 나에게 건축은 종교와도 같다!

이자(李梓) 건축사는 전주에서 명망이 높은 건축인이다. 중앙대학교 건축미술학과를 졸업하고, 故 홍순인 선생의 가르침으로 건축설계에 입문하였으며, 대우 건축연구소, 연희 종합건축사사무소 등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전주로 돌아온지 20년이 되었다. 그는 작품활동은 물론이고 후학양성과 협회활동에도 열정을 쏟아 1993년, 1998년 전라북도지사 표창장을 받았고, 2008년에는 전주시 예술상(건축부문)을 수상하였다.

주요작품 : 향석재(香石齋, 1994), 전북대학교 정문디자인(1994), 전북건축사회관(1996), 부남빌딩(2001), 전북대 델리샵(2002), 신흥고 동문회관(2003), 리빙교회(2005)



이 자(李梓)  
건축사사무소 미건사

광주에서 나선 신영은 · 박종호 · 정영법 건축사, 전주에서 합류한 김기범 · 장성호 · 양우현 건축사 등과 함께 7명이



전주시 인후동에 위치한 '건축사사무소 미건사'에 들어 닦았는데, 사무실 한 칸에 자리 잡고 있는 먹과 버루 및 화선지가 인상적이었다. 미리 통보하고 방문하였지만, 사무실 이전과 일정이 맞물려 분위기가 어수선 했다.

그러나 이자 건축사는 "이름이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인사말로 산만한 분위기를 일신하였고, 이어서 들려준 중앙대 재학시절 하숙집에서 있었던 연애 추억담으로 첫 만남의 서막함을 날려 버렸다. 거기에 힘입어 화구에 대해 조심스레 여쭙더니, "요즘 들어 그림에 폭~ 빠져 있습니다" 하면서 수줍게 한 폭의 동양화를 내보이셨다. 동양화를 배우기 시작한지 5주정도 되었다는데 문외한의 눈에는 유명 화가의 작품과 다를 게 없었다.

### 건축에 입문하게 되신 동기가 있으시다면

고등학교 재학시절에 적성검사를 했었는데 '건축'이 제 적성에 맞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로 이 길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게 된 것을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만족합니다. 지금도 내 손을 거쳐서 새로운 건축물이 탄생될 때는 환희와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사라는 것이 행복합니다.

### 가장 존경하는 건축인을 꼽으신다면

당연히 故 홍순인 선생님이지요. 그 분께 건축설계를 배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분께 미처보고 싶을 정도로 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 말씀이 곧 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숨도 크게 못 쉴 정도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분으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그분의 열정과 능력을 생각하면 가슴이 뻥뻥합니다. 그런 분이 48세의 나이로 요절하셨다는 것이 너무도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는 감히 그 분을 '한국 건축계의 전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건축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고 하던데

저에게 건축은 종교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건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건축을 먼저 생각하려 하고, 온갖 열정을 쏟으려 하며, 기꺼이 헌신하

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축은 저에게 기쁨도 주고, 행복도 주며, 삶에 대한 믿음도 주었습니다.

### 작품에 즐겨 쓰시는 건축언어가 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시대에 건축을 하면서 전통과 하이테크(Traditionalism & Hitech)의 결합을 시도하고, 모든 건축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전통 요소에 대한 도입과 승화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축물의 도입부로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이어주는 현관에 대한 해법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현대 건축물의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로서 내·외부공간을 단절시켜버리지만, 전통건축에서는 방도 아니고 마당도 아닌 툇마루가 현관 역할을 하면서도 성격이 다른 공간을 이어주고, 구분해 주었으며, 완충시켜 주었습니다. 그 차이점과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의 정서에 적합한 현관의 공간적 성격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남빌딩(2001)

또 한가지는 아르데코입니다. 아르데코의 특성인 입면의 상징성, 개방감, 에너지절약(ECO GREEN)효과 등을 살펴보고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도입부 즉, 현관에 아르데코를 반영하고 때로는 전통 요소인 툇마루와의 접목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작품을 소개해 주신다면

내 놓을만한 것이 없는데, 허허허.(이 질문에는 매우 수줍어해서 같은 지역 건축사가 추천한 작품을 소개함) 그동안의 작품은 수없이 많지만 알려진 작품으로 추천하자면, 현상설계로 당선된 전라북도건축사회관과 전북대학교 정문디자인, 델리샵, 부남빌딩, 삼례 리빙교회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부남빌딩은 건축주의 무한한 신뢰로 많은 부분에서 설계자의 의도가 반영되었다.



전북대학교 정문디자인(1994).



델리샵(2002)



리빙교회(2005), 아르데코

### 선배 건축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건축인들에게 있어서 건축은 종교와 같아야 합니다. 건축을 신앙의 대상처럼 인식하고 건축에 미쳐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건축을 통해 기쁨과 행복과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열정도 중요하지만 소신도 분명해야 합니다. 그 소신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건축주를 설득하여 바람직한 건축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도전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확고한 소신 그리고 끝없는 노력으로 건축을 숭상한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여태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건축활동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던 터라 지금은 그림에 미쳐있었습니다만 그림도 역시 나의 신앙인 건축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림을 통해서도 건축의 아늑함과 따사로운 그리고 자연과 한껏 어울리는 건축의 정취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자 건축사는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아직도 수많은 스케치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흔적이 작업실 벽면 여기저기에 남아있었다. 그에게서는 건축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취재·정리 : 서재형 건축사기자 archiseo@lycos.com

## Architectural Design Group

**AD GROUP이 지향하는 목표는 人本입니다**  
**AD GROUP의 DESIGN 철학도 人本입니다**

(주)건축사사무소AD그룹  
 • 건축설계, 감리    • 도시계획설계

(주)에이앤디  
 • 인테리어설계    • 인테리어 시공  
 • 에코빌 단열필름 시공

(주)에이앤디 부동산 개발업(등록번호 광주090008)  
 • 등록규모(연면적 2000㎡)이상 부동산개발  
 • 약정이 따른 부동산 개발

(주)베트남하노이 건축사사무소AD그룹

대표건축사 양동현 심상봉 신정철 양동운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145-5 / T 062)527,5000 / F 062)523,3700



# 숙련된 최고의 시공기술과 최고의 품질로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 저희 창원기공(주)가 21세기 건축산업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 나가겠습니다.

저희 창원기공(주)은 오랜 숙련된 건축산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시공기술과, 최고의 품질로 차별화된 건축산업의 선두 주자로 우뚝 서 나가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건축물의 아름다운 표현을 위하여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고객과 함께 하는 기업, 고객을 주인으로 섬기는 기업으로 우뚝 서 나가겠습니다.

대표이사 강 만 석



부안군 실내체육관 설치 과정



순창 소모 세차기 공장 설치 과정



담양 실내체육관 설치 과정



청단 아울렛 코리아 설치 과정

**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 금속구조창호공사업  
(고층빌딩 · 공장 · 주차장 · 육교 · 실내체육관 등)



**창원기공(주)**

본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508-2번지  
TEL.(062)953-8111~4 FAX.062)953-8115



### '2012여수엑스포타운 내 한옥단지 조성사업' 현상설계경기 -공사비 99억, 설계용역비 4억 3천, 현상설계기간 1개월, 심사자료 미공개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해 12월 8일,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부족한 숙박시설(중사자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전통 한옥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홍보하며, 이를 계승하기 위하여 '2012여수엑스포타운 내 한옥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축설계경기를 공고하였다.

대지는 전남 여주시 덕충동 일원의 여수엑스포타운 내 약 27,605㎡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단독주택 40세대 이하 및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약 3,200㎡(한옥 2,100㎡, 관리동 1,100㎡)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예정공사비는 9,993백만원, 예정설계용역비는 429,220천원이라 밝히고, 2011년 1월 7일까지 작품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개월의 응모기간을 거쳐 2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1월 10일에는 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열렸고, 지난 1월 19일 전남개발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선작으로는 (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김상식)와 (주)삼진 건축사사무소(대표 이봉수)가 공동으로 응모한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작으로는 건축사사무소 미가엔(대표 이순미)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와의 협력관계가 미흡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안타깝게도 본 지면에 수상작을 소개하지 못하게 되었다.

### 전남대 건축학부, 'Rhino' 소프트웨어 강좌 진행 - 이번 달 18일까지 매주 월, 수, 금 진행 계획



전남대학교 건축학부는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8일까지 매주 월, 수, 금요일을 통해 총 18번의 Rhino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Rhino란 3D NURBS Modeling 전문 소프트웨어로 NURBS란 정형화 되지 않은 함수의 곡선이라는 뜻으로 Curve, Surface, Solid 등 3차원 Geometry를 수학적으로 정확하

게 정의, 표현하는 가장 진보된 방식의 모델링 소프트웨어이다.

Rhino는 스케치나 도면으로 시작하거나, 실제 모델, 스캔 데이터,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모델링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으며 제약이 없는 자유 형식의 3D Modeling 도구이다.

Rhino 수강생인 이창현 학생은 "Sketch Up 프로그램으로 표현하기 힘든 곡선모형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어서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기 전에 곡선 때문에 해보지 못했던 형태들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좋은 계기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강의는 이엘건축 이원규 건축사가 담당 하고 있다.

### '2011 바이오하우징 국제세미나' 개최

- 교육과학기술부 주최와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주관



지난 2월 8일 전남대학교 공대 2호관 4층 첨단강의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 주최,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와 바이오하우징연구사업단 등

공동주관으로 '2011 바이오하우징 국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Sustainability in Built Environment : a Perspective from Far East'이란 주제로 중국 북경 공업대학 Dai Jian 교수와 Yu, Yongwan 교수,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원규 교수, 오세규 교수가 강연하였다.

강연에 참석한 김예솔(전남대 건축학부 3학년) 학생은 "모처럼 국제규모의 환경과 건축 관련 세미나가 개최되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말했다.

### 각 대학 홈페이지 관리허술 심각

- 경우에 따라 학생모집과 학과홍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긴긴 겨울방학으로 인하여 대학기자의 활동도 동면에 들었는지 대학소식이 뜸했다. 방학 동안의 여유로움을 잘 알고 있기에 대학기자를 만날 수 없어서 직접 대학소식을 수집하기 위해 각 대학 건축 관련 학과의 홈페이지를 뒤져보았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과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대부분의 홈페이지들이 '방치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었다.

각 학과마다 홈페이지는 개설되어 있었으나, 허술한 관리로 인하여 교수진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해묵은 자료들만 나뉠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2009년 이후로 학과의 소식이 전혀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지금이 홍보시대이고 정보화시대라는 것을 무색케 하는 홈페이지가 적지

않았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홈페이지가 학생모집과 학과홍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일부 대학의 경우, 학과 내 행사나 동정 및 공모전 입상 소식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고, 별도의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수도권 등 타 지역의 대학에는 홈페이지를 학습정보 공유, 교육프로그램 운영, 토론 및 소통의 장 등으로 적극 활용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와 습득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그만큼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서재형 건축사기자 archiseo@lycos.com

### 각 대학 학위 수여식 일정

2월 17일(목)	서남대학교
2월 18일(금)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초당대학교
2월 19일(토)	한려대학교
2월 22일(화)	광주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대학교, 전북대학교
2월 23일(수)	호남대학교, 호원대학교
2월 24일(목)	우석대학교
2월 25일(금)	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 건설분쟁! 공정한 평가

"건설분쟁은 공정한 평가와 대화로 해결된다."

**감정인 건축사 정 태 호**

- 25년 공사원가분석
- 15년 법원 공사비 감정 위원

TEL:(062)512-8044 HP:010-3602-3378

## ..학생기고

### 나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

오스트리아 빈 한인문화회관 (실습기간 중에 제작한 모형사진)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에는 신처럼 존경하고픈 건축계의 거목이 있다. 이름 석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송효상. 그의 작업실 이로재(履露齋)는 아침 이슬을 밟는 집이라는 뜻으로 '가난한 선비가 사는 집'이라 해석되기도 한다.

"빈자의 미학"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건축가 송효상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빈 공과대학에서 수학했다.

15년간 공간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김수근 문하에서 일한 뒤, 1989년 건축사 사무소 이로재를 개설하였다. 파주 출판도시의 코디네이터로 새로운 도시 건설을 지휘한 그에게 미국 건축가 협회는 2002년 ' 명예 펠로우'의 자격증을 부여하였고, 같은 해 건축가로는 최초

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어 '건축가 송효상 전'을 가졌다. 이후 2003년에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2004년에는 도쿄 갤러리 마에서 초청 전시회를 열었다. 1998년 북 런던대학의 객원교수를 역임한 후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출강하며, 새로운 건축 교육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 그는 2008년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의 한국관 커미셔너를 맡았다.

"가집보다 쓰임이 더 중요하고, 더함보다는 나눔이 더 중요하며, 채움보다는 비움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에게 건축을 하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출탁동기(卒啄同機)'를 기대한다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서민석 학생기자  
archilly@nate.com



### 광주건축사회, 제24회 정기총회 3월 4일 개최

- 제13대 회장 및 감사 선출,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부의안건으로 '2010년도 수지결산의 건과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이 상정되며, 특히 이번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은 향후 2년간 광주건축사회를 이끌어갈 제13대 회장을 선출하는 안건이므로 많은 회원들이 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24회 정기총회가 2011년 3월 4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자산동 신인파크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표창패 수여식을 통해 당해 임기만료되는 임원들과 교육홍보위원장 장정수 건축사, 일부 시청 및 구청 공무원 등 약 10여 명의 인사들에게 감사패 및 공로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금번 정기총회는 개회를 시작으로 성원보고, 국민익례, 건축사헌장 낭독, 개회사, 격려사, 축사, 표창패 수여, 신입 회원 소개, 전화 회의록 승인, 주요업무보고, 감사보고, 부의안건, 기타사항,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광주건축사회 김재성 사무국장은 "올해 초부터 이번 제24회 정기총회를 계획하였으며, 현재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황으로 차질 없이 정기총회가 제 일정에 맞춰 개최될 것이다"고 밝혔다.

### 제1기 '광주건축사 Academy' 수료식 열려

- 제14차 강좌를 끝으로, 건축사회원 45명 수료해



데미도 건축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작년 9월 3일,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인 승효상 건축사의 제1차 강좌를 시작으로 진행된 '제1기 광주건축사 Academy'가 올해 1월 13일에 제14차 강좌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광주건축사회 신정철 회장이 축사를 통해 "회원들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분야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마련한 건축사 아카데미 교육과정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빛을 내주시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제14차 강좌가 열리는 이날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수료식을 갖고 수강생 45명의 건축사에게 수료증을 교부했다.

이어 1기 건축사 Academy 우수 수료자 및 공헌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에서 신영은(건축사사무소 사람), 마재완(주)대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광영경(간토 건축사사무소)건축사가 수상하였다.

이날 광주건축사 아카데미 류연창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처음으로 시작된 건축사 아카데미에 많은 건축사분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며 "향후 열리게 될 2기, 3기 아카

데미도 건축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광주건축사회 신정철 회장이 축사를 통해 "회원들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분야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마련한 건축사 아카데미 교육과정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빛을 내주시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광송극 전담기자 ksk830710@hanmail.net

### 광주문화재단, 지난 1월초 공식 출범해

-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단에 건축사도 참여



싱크탱크,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 개발에 앞장서는 광주문화재단이 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문화재단을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설립된 광주문화재단이 지난 1월 13일 빛고을문화시민회관에서 공식출범식을 가졌다.

광주문화재단은 앞으로 '문화광주의 나무를 가꾸는 농부가 되겠다'는 비전과 '문화로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조성'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지역 문화예술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최중원 의원 등 정관계 인사 및 일반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공식출범에 앞서 지난해 12월 말 건축사, 교수, 연구원, 문화예술인 등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 25명을 구성하여 정책자문단을 발족하였으며, 이 자문단에 광주건축사회 박홍근 건축사(포유 건축사사무소)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향후 건축과 문화가 연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광주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 News 광주 건축계 동정

#### \*변경 (상호 변경)

- 정관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자경당 → 건축사사무소 자경재
- 김권수 건축사 / (주)양지 건축사사무소 → (주)보림 건축사사무소

#### \*부고

- 신영기 건축사 / (주)신연희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1월 15일(토)
- 신춘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지에이 · 부친상 - 1월 16일(일)
- 김 곤 건축사 / 선택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1월 27일(목)
- 문창식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1월 27일(목)
- 김기준 건축사 / (주)엑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월 4일(금)

#### \*변경 (소재지 변경)

- 윤정태 건축사 / 하나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중흥동 694-10번지 2층

#### \*결혼

- 박종갑 건축사 / (주)공우 건축사사무소 · 장녀 - 1월 22일(토)
- 박무길 건축사 / 대광 건축사사무소 · 차남 - 2월 12일(토)

#### ▶ 광주광역시청 건축계 인사 발령

- 송영한 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장 → 건설방재국장 직무대리(승진)
- 장상근 건설방재국장 → 광주광역시
- 백봉기 생태대천수질과장 → 도시계획과장
- 이기수 광주광역시(교육복지) → 도시디자인과장
- 이종근 도시디자인과장 → 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장
- 강백룡 건축주택과장 직무대리 → 건축주택과장(승진)
- 최만옥 도시계획과 → 시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 위원 직무대리(승진)
- 안용훈 건축주택과 지방시설사무관 → 교통시설과 지방시설사무관
- 최성용 건축주택과 지방시설주사 → 토지정보과 지방시설주사 (5급 직무대리 승진)
- 윤재철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지방시설사무관 → 건축주택과 지방시설 사무관
- 신재욱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지방시설주사 → 건축주택과 지방시설주사
- 강 권 광주광역시 지방시설사무관 → 도시재생과 지방시설사무관
- 박 용 도시철도건설본부 지방시설주사 → 도시디자인과 지방시설주사
- 조석현 건축주택과 지방시설주사보 → 시립미술관 지방시설주사(승진)
- ▶ 남구청
  - 정정석 회계과 청사관리계장 → 청사건립담당(승진)

### News 전남 건축계 동정

#### \*입회

- 정민선 건축사 / 계원 건축사사무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846-1 3층
- 남효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수
- 전남 강진읍 남성리 123, 모란빌라 103호

#### 변경 (소재지 변경)

- 송 민 건축사 / 세움 건축사사무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1-3, 2층

#### \*전입

- 이남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우안&창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7

#### \*결혼

- 조도인 건축사 / 전남 건축사사무소 · 차남 - 1월 8일(토)
- 노상익 건축사 / 전일 건축사사무소 · 차녀 - 1월 9일(일)

#### \*부고

- 현수호 건축사 / 흥의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1월 4일(화)
- 최세호 건축사 / 빛가람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월 5일(토)

#### \*변경 (소재지 변경)

- 최성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창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57-7

#### ▶ 전라남도청 건축계 인사 발령

- 박홍순 F1대회 조직위원회 → 시기관 승진
- 홍삼수 공공디자인과 → 행정과
- 정진환 행복마을과 → 감사원 파견
- 김태식 감사원 파견 → 행복마을과
- 강석원 사무관 → F1대회 지원본부
- 정한민 공공디자인과 → 사무관 승진

### News 전북 건축계 동정

#### \*입회

- 김현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현대자인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94-1
- 김중원 건축사 / 아진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36-3
- 홍영식 건축사 / 하늘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313-9 3층

#### \*변경 (소재지 변경)

- 이승권 건축사 / 미르 건축사사무소
- 장승군 장수를 장수리 165-2번지

#### \*부고

- 이근구 건축사 / 명가 건축사사무소 · 부인상 - 1월 16일(일)
- 박광성 건축사 / 비우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1월 24일(월)

#### ▶ 전라북도청 건축계 인사 발령

- 박성균 전주시의회 시설사무관 → 완산구청 건축과장



## 광주건축사회 제13대 회장 및 감사 선거 일정 - 2월 14일(월) 후보자 등록 마감과 함께 16일(수) 후보자 공고

2월 8일(화)	선거공고(후보자 등록)	2월 17일(목)	선거공보 제출
2월 14일(월)	후보자 등록마감	2월 18일(금)	선거공보 발송
2월 15일(화)	기호 추천 및 후보자 초청좌담회	3월 4일(금)	선거실시(정기총회)
2월 16일(수)	회장선거 및 감사선거 후보자 공고	3월 7일(월)	선거효력이의신청 마감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남건축사회, 2011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향후 전남건축사회의 발전과 현안에 대한 논의로 진행돼

전라남도 건축사회는 지난 1월 21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2011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협회 임원 2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2010년도 수지예산결산, 2011년도 전국 시·도 회장 회의사항 전달을 하였으며 협의사항으로는 군단위 지역건축사회 신설추진, 지역건축사회 월례회와 병행하여 예로 및 건

의사항을 청취하기위한 이사회 지역 순회개최, 협회업무와 사무소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신입회원의 간담회 개최, 지역건축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 등에 대한 건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매년 도 건축사협회는 1월에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선·후배건축사간의 우애를 다지며, 건축사회의 발전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 광주야구장, 턴키방식으로 시공사 선정기로... - 입찰자격, 종합경기장 건설 경험이 있는 시공사로 제한방안 검토



올해 상반기 광주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건축공사로 꼽히는 무등경기장 야구장 신축공사에 건축·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7일 "새 야구장은 설계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Turn Key)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턴키 입찰 자격은 종합경기장 건설 실적이 있는 시공사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더욱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시공을 위해 턴키방식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라며 "당초 야구장 건설 실적이 있는 시공사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종합경기장 실적 보유사로 문호를 넓혔다"고 말했다.

국비와 시비, 민자 등 1,000억 원이 투입되는 새 야구장은 오는 6월까지 시공사를 선정, 7월부터 무등경기장 내 축구장을 철거한 뒤 지하 3층 지상 3층 연면적 5만5200㎡ 규모로 오는 2013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야구장 건립 TF팀 회의에서 공개된 야구장 건립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시민편의를 위해 광주의 새 야구장 주변에 주차장과 도로가 새로 조성될 예정이다.

### 법/령/소/직

#### 최근공포법령 >>>>>

##### \* 건축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 [2011.01.26 공포, 시행]

개정이유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중 업무 관련성이 적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법제처장을 당연직 정부위원에서 제외하고, 건축·도시·조경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 \*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건축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01.24 시행]

개정이유 : 건축사의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0392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을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계약금액으로 하고, 건축사업무신고 면제기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석유공사 등을 명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01.06 공포, 시행]

개정이유 :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재해위험이 있다고 인정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입면도, 단면도 등 구조안전의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최근공포 훈령,고시 >>>>>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0.12.31]

개정이유 : 에너지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바탕으로 허가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의사항 : 단열재의 두께에 대한 변경이 2011.2.1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규 허가 시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남부지역의 경우 가등급 기준 최상층 천정은 135mm, 최하층 바닥은 75mm, 외벽은 70mm 정도이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람.

## 대한건축사협회 제29대 회장 및 2011년 감사 후보자 안내

### - 역대 최다 회장 후보자 경쟁, 2월 25일 본회 정기총회에서 선거 실시

구 분	기호	성 명	사무소 명	
회 장	1	박대용	(유)에가 종합건축사사무소	
	2	김영수	(주)민영 종합건축사사무소	
	3	강성익	(주)한라 종합건축사사무소	
	후 보 자	4	박재용	박재용 건축사사무소
		5	정태복	(주)부산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6	강희달	제이 건축사사무소
감사 후 보 자	1	이영호	(주)새롬 종합건축사사무소	
	2	김득수	미전·심대 종합건축사사무소	

##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윤 춘 주**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서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범조타운 206호  
전화: 062-226-7400 팩스: 062-225-5310  
홈페이지: nicelawyer.co.kr/윤변호사.com

###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신정철, 김경수, 이성엽  
편집인 박승근  
전담기자 박승근  
편집위원 이순미, 서재형, 정태호,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성호, 송명옥, 김기범, 정영범, 정관성, 박종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삼화문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062)521-0025



### 표 / 지 / 설 / 명

광주시민회관은 1971년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에 의해 연면적 3,795㎡,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설계되었다. 광주의 관공회사설이 전무했던 1970년대 당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대규모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광주의 대표적 근대건축물중 하나로 최근 일부 보존 및 일부 철거기로 결정되었다.

###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기금: 1만 원부터
- ▶ 후원방식: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한 남 수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00만 원
장 범 업	초석건설산업(주)	100만 원
문 형 록	반석기초이앤씨(주)	100만 원
이 창 울	(주)GA건축사사무소	50만 원

###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제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 (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향)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jkir@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예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 산속에서

### 월야(月夜) 주택

이순미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마가온 대표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지명이 많다. 전라남도 함평군에 있는 월야(月夜)면도 그 중의 하나다. 월야(月夜)라는 이름처럼 달빛으로 가득 찬 이 마을에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집을 짓고 싶었다. 달빛처럼 운치있게, 밤처럼 아늑하게 소박하지만 살기운 사람들의 집을 짓고 싶었다.

달(月)은 내게 특별한 영상을 떠올리게 한다. TV 드라마 '명성황후'에서 본 장면인데, 첫 아이를 잃은 명성황후가 슬픔을 이기고 두 번째 회임에 성공한 후,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달님과 소통한다. 그녀는 휘영청 밝은 달과 미주서서 그 기운을 얻고자 아주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하면서, 운몽의 기를 모아 숨을 들이키고 내쉬기를 거듭한다. 아기의 안녕을 갈구하는 어머니의 간절함이 달빛과 어우러지면서 내게는 마치 구도의 장면처럼 매우 경건하게 다가왔다. 월야 주택을 의뢰받는 순간 나는 달과 연관된 곳에 집을 짓게 되었다는 설레임에 가득 찼다. 신비롭고 따뜻한 집을 지어야 하는 소망이 솟구쳤다.

월야 주택의 건축주는 오랜 동안 살아 온 지인으로, 모든 면에 박식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집에 대한 생각은 나와 많이 달랐다. '기껏 해봐도 20평 정도의 농가주택인데 대충 하자고'라는 말씀을 듣고 나는 많이 안타까웠다. 집은 편안하고 안전하며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장소가 되어야 한다. 가족들이 돌아와 쉬는 곳, 함께 웃고 웃으며 삶을 누리려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의 집이 아닌가.

물론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건축주께도 말 못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씩씩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나의 이름으로 남는 작품이니 주어진 조건 아래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냐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23평 규모의 월야 주택은 거실과 주방, 식당을 LDK 방식으로 작은 공간에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안방 1개와 화장실은 샤워실과 변기실, 세면기를 각각 분리 영역화 하여 이용률과 편리성을 높였으며, 충고를 이용하여 주방과 화장실 ZONE의 상부는 다락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계획함으로써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는 공간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수납 공간으로 창고와 불박이장을 마련하였다. 부족한 공사비 때문에 자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가장 저렴한 자재로만 집을 짓게 된 것이 못내 안타깝다.

나는 월야 주택의 외부 공간을 구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전면의 외부 데크를 자연과 연계하여 외부 풍광과 사람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중요한 장소로 구성하였으며, 후면 데크는 뒷마당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받아주고, 완회시키는 매개체로 주방에서의 보조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곳이지만, 그래도 월야 주택이 건축주 가족의 행복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해 본다.

● 한결의시

### 지역연고 지상주의

權岩 유응교  
전북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서울 양재동 파출소  
농촌을 돌며 소를 도둑질한 사나이로  
놓고 심문을 계속한다.  
야 임매! 똑바로 앉아  
도둑질 언제부터 배웠냐?  
이 못된놈!  
집이 어디야?  
광주데요.  
똥이라고?  
내가 지방 광주가 집이라고?  
나도 광주군.  
그래 어쩌다 이렇게 됐냐?

담배 한 대 피우고 편이 없어  
마음 탁 놓고 말해보드라고잉  
지가 눈두렁에 새끼줄 하나 놓여 있길래  
그걸 들고 집에 와보니  
새끼줄에 송아지가 매어 있더구만요.  
그러면 그렇지. 니가 도둑질할 것 같진 않드랴게

다시 조서를 꾸민다.  
그래 그러니까 본적이 어디라고?  
경기도 광주...  
뭐야 이 새끼. 경기도 광주라고?  
담뱃물 꺼 똑바로 앉아 바른 대로 대  
새끼줄에 송아지 새끼가  
묶여 있는 걸 몰랐다고?  
넌 당장 공부야!  
니가 어찌지 도둑질개냐 허고  
다닐 놈 같드랴게... 요걸 그냥.



### 건축물에는 건축이 없다

양용기 지음 / 평단문화사 펴냄

전장규  
은고을중 교사



저자는 독일에서 20대와 30대 초반을 보냈으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건축에 상반된 개념이 공존하는 디자인 이론을 직접 설계에 반영하면서 새로운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건축은 삶의 이야기이며 인간의 생활을 담은 공간예술로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는 학문이다. 일반적으로 실생활에 사용되는 물건을 디자인한다면 특별한 기능이 부여되기 때문에 기능과 디자인이라는 두 가지 범주를 다루면 무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는 여기에 심리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규정짓기 어렵다. 각 건축물마다 특별한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처음 설계를 시작할 경우, 물론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지만, 건축물의 외형이 그 기능과 부합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없다. 때로 건축물이 갖는 외형은

내적인 조건이나 기능과는 상관없이 이미 주어진 상황과 또는 새로운 시도에 의한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을 디자인하면서 초기에 가졌던 의도와는 결과가 전혀 다르게 발생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설계자는 즉흥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단계마다 자신의 의도를 반영하면서 변화되는 요소를 적용해 나간다. 그리고 그 디자인 속에는 설계자의 의도 즉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메시지는 일반인들에게는 마치 암호와도 같아서 전문적인 지식을 동반하지 않으면 그 암호를 해독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설계자의 작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주어진 요소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과 자신의 메시지를 이 주어진 요소와 잘 융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작업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나 이를 계속 연습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삶을 디자인한다. 이는 마치 인생을 살아가면

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행상황이다.

#### 왜, 누가, 어떻게? 근원적인 건축개념 잡기

건축은 의식주 중의 하나이다. 그 만큼 인간의 삶에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위해 해당하는 옷과 음식에 해당하는 食에는 익숙해 있으면서도 住에 해당하는 건축에 대해서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다. 건축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며, 생활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건축을 사랑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준다.

#### 건축은 건물이 아니라 공간을 창조하는 것

"건축물에는 건축이 없다." 그렇다면 건축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말에서 건축물은 외형적인 것을 말한다. 그리고 '건축'의 의미는 건축물이 지어지기 전까지의 '모든 행위'이다. 즉 건축 안에 그 모든 행위가 들어있는 것이다. 요컨대 건축물의 외형만 보아서는 그 건축가의 아이디어나 건축물에 담긴 의미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건축가 Gallery



52x65cm oil painting

#### 구례 임록계곡에서

구례임록 계곡이면 예쁜 계곡이 나를 유혹한다. 그곳에 잠시 머물러 피리문과 멧장림을 캠퍼스에 담아본다. 그림그리기는 참 좋다. 저 들뜬 꽃들도 다 내 것이 되어 돌아온다.

김유진 건축사 작

Photo



전남 나주 도래마을

#### 도래마을 겨울풍경...

온통 새러만보수에 덮여있다. 산도 지붕도 담장도 길도... 수도 없이 흰 눈 내린 겨울 어느날. 경이 춤을 이룬 자봉선이 자연과 어우러져 더욱 다채로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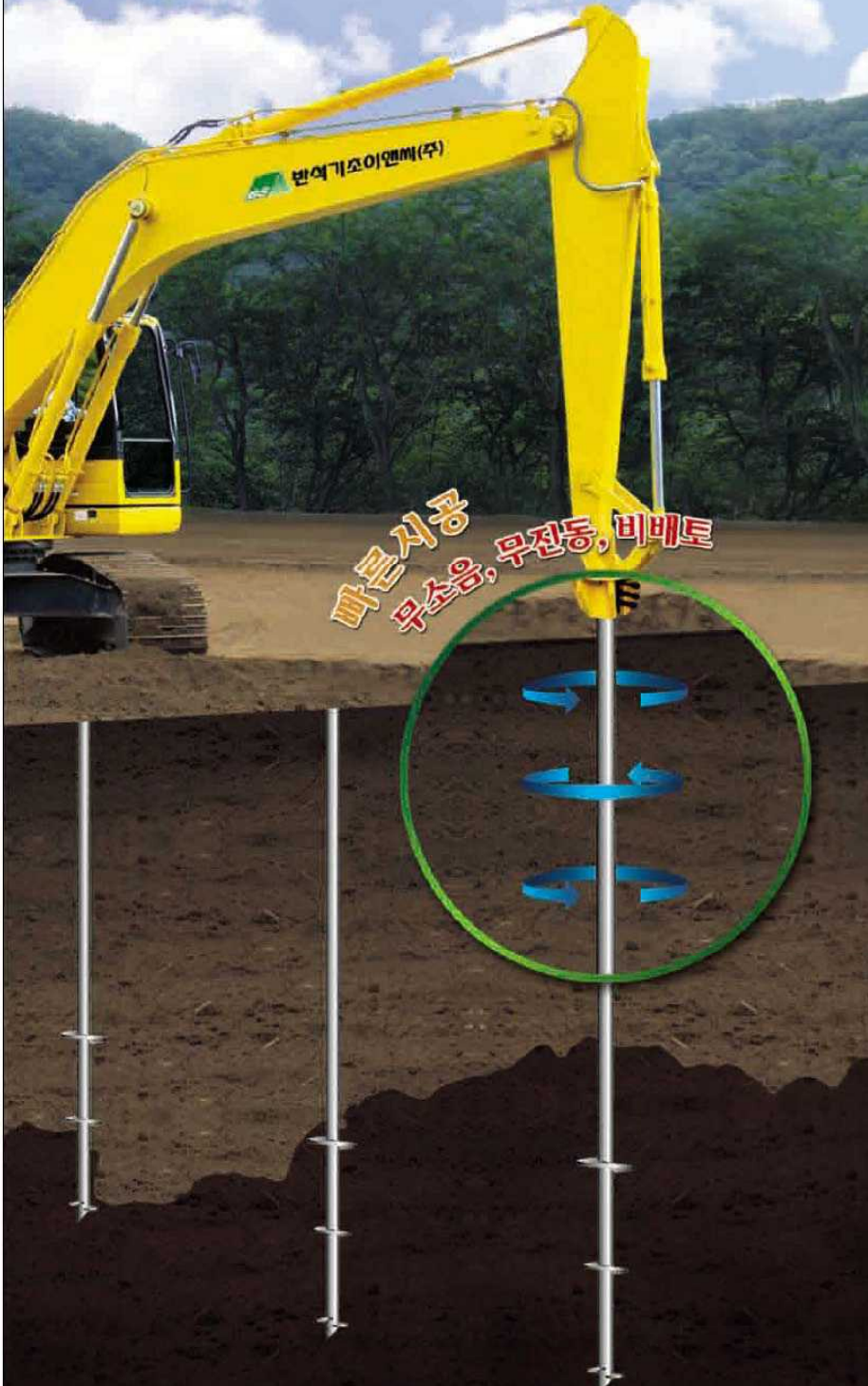
장영범 건축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 ISO 9001인증

# ROTARY PILE 공법

나선형 회전운동으로 지반에 삽입하여 주변 마찰과 선단지지함으로써  
압축과 인장력에 강한 지지력을 최대화한 친환경 파일 공법



**빠른시공**  
무소음, 무진동, 비배토

### 시공사례



부천고강동 공영차고지



군산 한산공장



군산 OCI 공장



파주 한양 아파트



속초 한화리조트





# 건축물의 가치향상, 외장마감의 아름다움 표현

## 초석건설산업(주)이 최고의 품질과 우수한 시공기술로 실현하겠습니다.



**RIVER CLACK**  
THE FLAT ROOF METAL COVERING SYSTEM

저희 초석건설산업(주)은 차별화된 디자인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신공법개발, 그리고 체계적인 인재육성에 전력을 다하여 왔으며 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실적보다는 미래의 VISION을 제시하고 실행을 우선시하는 마음으로 건축물의 가치향상과 외장마감의 아름다움 표현을 위해 책임있는 설계품질, 시공품질, 최고의 품질경영과 기술개발로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미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장 병 업



나주 국민체육센터



완도 수협활어유통센터



장흥 우산도전망대



완도 수협활어유통센터



무주 반딧불천문과학관



광주 국악전수관



장성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전시관



부안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



부천 가톨릭대학교 150주년기념관



청도 솔리움타운하우스



치평동 근린생활시설



돌출이음



각행돌출이음



평이음



가락이음



리빌패널



골패널

소재

티타늄-아연판(ZINK), RIVER CLACK, (산화)동판, AL SHEET(지붕재, ECOTEEL(접합강판), 링클수지강판, 스테인레스(지붕재), 칼라강판, 고밀도목재패널



**초석건설산업(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구영드림빌 613호  
TEL.(062)381-1138 FAX.062)381-1139